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2년 2월 제264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유양형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강신열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제37회 정기총회 3월 25일(금요일) 저녁 대전에서 열린다"

충기총동문회 제90차 이사회 지난해 예산 결산, 2022년 새해 예산안 통과

총동문회 제90차이사회가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총동문회 제90차 이사회가 모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22일 저녁 6시 30분에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오응수(1회), 윤대진(5회), 이윤학(6회), 임세환(9회), 전종현(12회) 고문과 서한수 자문위원장(3회) 등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결산과 2022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강신열 총동문회장은 인사에서 "추운 날씨와 바쁘신 데도 참석해주신 선후배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마비된 가운데 새해 예산안 등 중요 사안을 다루는 고견을 기대하며 상호 존중으로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90차 이사회에서는 총동문회 활동사항 보고에 이어 부의 의안으로 제1호 의안 2021년도 결산 보고의 건으로 특별회계(잔액 378,691,548원)와 일반 회계(잔액 81,959,882원)의 결산을 상정했다.

또한 제2호 의안으로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건으로 특별 예산 수입(9,500,000원)과 지출(모교 후배 장학금 4,500,000원), 일반 회계 수입(272,600,000원)과 지출 예산(272,600,000원)을 각각 상정했다.

제3호 의안으로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일정의 건이 상정되어 토론 끝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예년과 달리 셋째 주 금요일에서 한 주 늦춘 3월 25일 저녁 6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장소는 미정으로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기타 토의에서는 모교 운동장 스탠드 천막 재시공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대해 정찬목 모교 간사는 "동문인 이종업 교장이 부임한 이래 모교는 천지개벽이 됐다"며 "시교육청에서 타당한 사유를 갖고 공사한 만큼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흥교 사무총장은 "학교행정을 동문회서 이야기하면 곤란한 게 아니냐"며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윤대진 고문은 "예산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한다. 학교의 중요한 일은 동문회와 협의해서 해야 한다. 모교 운동장 스탠드 천막 건은 동문회에서 학교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준 이사(14회)는 송재길 동문의 총동문회장 지위 인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세환 고문은 그 간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임세환 고문은 "16대 회장으로 등장한 송재길씨가 임기 도중 갑자기 사퇴함으로써 14대 회장을 지낸 제가 고문들의 간청으로 사고 수습차원에서 회장을 맡았다.

그후 이사회 때마다 회장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를 위임받아 13회동문회와 고문과 자문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송재길씨를 두 번이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만났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송재길 동문에게 세가지 요구사항(1. 고문들에게 사과할 것.
2. 이사회 참석하여 본인 신상 발언,
3. 동문회보에 사과의 글 게재)을 전달했다. 이런 절차를 밟으면 16대 총동문회장으로 인정키로 했다. 하지만 송재길 동문은 3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었다, 이사회에서 최종 처리를 위임받아 정기총회 때 경과를 회의록에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신열 회장은 "송재길 동문을 총동문회장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과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오늘 토의 내용을 본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식 동문은 "회장으로 인정해주고 사과를 받자"고 언급했다. 제90차 총동문이사회는 긴 시간 토론 끝에 강신열 회장의 폐회사로 마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제37회 총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 준비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 및 임원, 각 모임의 단체장님들을 비롯한 동문들께서는 설송회보와 충기총동문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상정된 제90차 이사회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3월 25일 저녁 6시 30분
* 장소 : 미정(추후 홈페이지 및 밴드에 게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강 신 열

“동문회비 쌈짓돈은 전체 동문 단결시키는 촉매제 역할”

〈윤석길 16회 동문회장〉 동문회비 매월 천원 이상 자동이체 운동 제안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충남기계공고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암울한 시기에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16회 동문회장 윤석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보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연회비에 대해 동문 여러분과 총동문회에 간곡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10년 전 부터 동문회비를 매월 빠져나가도록 자동 이체를 해 놓았고 제 통장에서 2만원씩 이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월 동문회비를 낸다고 자랑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만 제 평상시의 생각을 올린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어느 단체든 어느 모임이든 적립된 돈이 많고 기금이 잘 들어오면 그 단체나 모임은 활성화가 되고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총동문회와 전체 동문들에게 연(年)회비가 아닌 “월(月)회비 자동이체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연(年)회비는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고 월(月)회비는 매월 내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정기간을 정해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은행 간 알아서 자동으로 이체되니 그 정해 놓은 기간 동안은 본인이 신경쓸 것도 없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동문의 말처럼 “학교가 나에게 해 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신이 졸업한 우리 충

남기계공고가 좋은 것이지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십시일반으로 동문들 각자의 쌈지돈이 합쳐지면 큰 액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총동문회는 더욱 활성화되고 그 쌈지돈은 전체 동문들을 단결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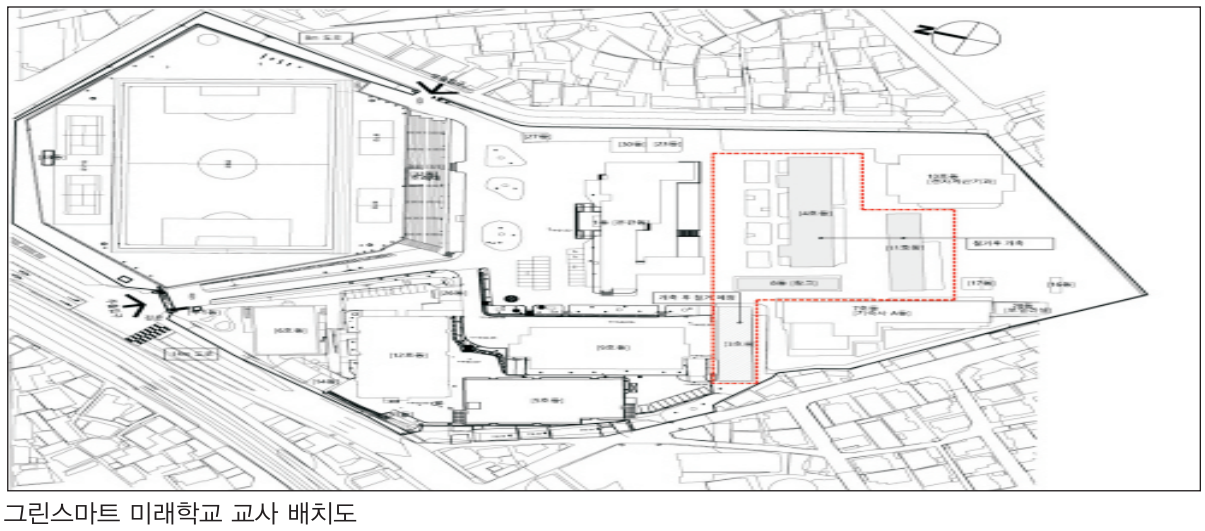
동문 여러분! 아무리 푼돈이라고 해도 내 돈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모두들 소중한 것입니다. 그 피 같은 동문들의 쌈짓돈을 제대로 썼는지 저는 총동문회의 감사로서 철저한 감사와 감시를 할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맞춰 매월 천원이던 오천원이던 만원이던 동문들께서 거래하는 은행에 한 번만 자동이체를 해 놓으시면 기금부족과 코로나 정국 등으로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총동문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 비난을 하시는 동문이 계시다면 그 비난은 온전히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이체 계좌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모교 본관 뒤편에 300억 들여 친화적 학습공간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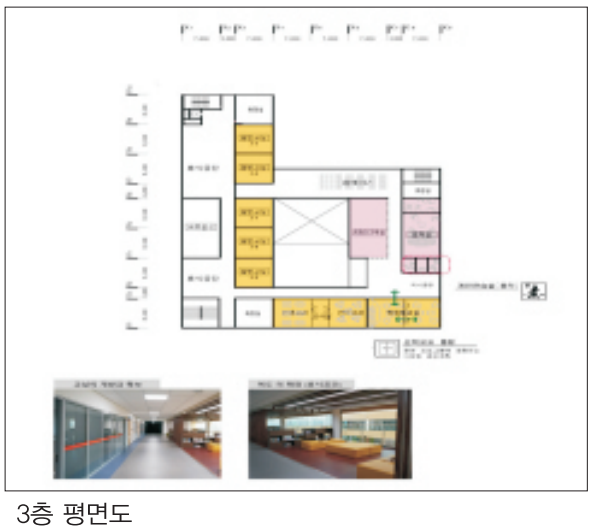
기존 3, 4, 8, 11동 건물 헐고 피트니스센터, 휴게공간, 힐링센터 설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사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모교는 지난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고,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치르면서 상전벽해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이종업 모교 출신 교장이 부임한 이래 모교의 환경이 아름답고 친화적인 학습공간으로 변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모교에서는 올해 3, 4, 8, 11호동의 낡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상 4층으로 개방식 도서관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휴게공간, 홈베이스, 힐링센터 등 학생 맞춤공간이 마련될것으로 기대가 된다.

“회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종일 일손 잡히지 않아”

〈포항거주 김동로 동문(20회)〉 모교 자긍심 설송소식 계속 발행해주세요!

포항동문회 동문과 가족들이 산행 후 해동용궁사 입구에서 기념 촬영했다.

김동로 동문이 1991년 타향인 포항에 취직하여 설계회사를 다니던 모습

포항동문회 산하 20회 이하 동문들이 부부동반으로 포즈를 취했다.

포항동문회 산하 20회 이하 동문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8년 모임을 가졌다.

안녕 하십니까. 선배님 그리고 친구들과 후배님들. 저는 포항에 사는 20회 김동로 입니다.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갑자기 신도성 선배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발전기금 협조에 감사하다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너무 소액이라서 오히려 부끄러웠지만 그나마 전화 통화라서 저의 붉은 얼굴을 보이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사는 포항 소식을 전해 달라 말씀하시더군요.

저와 포항과의 인연은 1984년 3학년 겨울방학 때 취업하기위해 설계회사에 들어갔으나 너무 힘들어 바로 대전으로 돌아와 전문대에 진학, 졸업과 동시에 군에 입대, 1990년 전역하고 취업하려 했으나 결국 돌고 돌아 제가 취업한곳은 포항에 있는 설계 회사였습니다.

1990년 포항에서의 충남기계공고의 위상은 좋았습니다. 대부분 포스코에(포항제철) 근무 하였는데, 다들 각자 위치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분에 제가 충남기계공고 출신이라는 말에 “좋은 학교 나왔네”, 또는 “공부 좀 했나봐”라는 인사가 대부분이어서 낯선 이곳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선배님 중에는 포스코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신분도 있었고 현재는 퇴직을 앞둔 공장장님도 계시고 약 250여 분의 동문이 있어 모임 때면 저의 동기들이 (20회 6명) 재롱을 부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1996년 개인 사무실을 시작했으나 IMF라는 어려움을 이어갔고 잠시 마이다스아이티라는 구조 프로그램 개발회사에 근무하다 2010년 재창업을 하여 비록 구멍가게 수준이지만 포스코관련(제철소) 기계설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던 차에 작년 11월호 우리 동문회보 설송소식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회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는 특히 공업계 출신들이 많은데 다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경북기계공고는 동문들의 학교 후원금이 매년 수억 원이 된다”고 으쓱하여 말합니다. 그 때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동문 선배들 중에는 군인 장성도 있고 변호사도 있지만, 더 자랑스러운 것은 전국에서 하나뿐인 설송 동문회보가 있다”고, 이거 하나 애기하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그토록 자긍심을 갖게 만들었던 우리 충기 동문회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선배님, 후배님 중에 누군가 후원해주셔서 회보는 발행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성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 충남기계공고 졸업생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최소 연회비 2만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3년째 이어오는 코로나로 인해 포항동문 모임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15회 선배님까지 진행된 정년퇴직으로 선배님들 얼굴 뵙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도 모임이 안 되어 포항동문 모두에게 사과 한 박스 씩 돌리는 것으로 회장님이 인사를 대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 후배님들이 포항동문 모임을 이어가야 될 텐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35회를 끝으로 포스코에 입사하는 후배님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포스코에 근무하는 동문들의 연봉이 전부 최소 억대인거로 알고 있는데 많은 후배님들이 포스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전처럼 동문들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익어갈수록 떠오르는 이름들, 얼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굴을 볼 수 있어야 이름을 알 수 있어야, 함께 한 추억들을 함께 한 시간들을 공유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문회보가 중단되지 않고 발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18일 포항에서
김동로(20회) 올림

김동로 동문 석달째 8면에 자비광고

동문회발전기금으로 50만원 입금도

포항에 거주하는 김동로 동문(20회)은 동문회보 발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고 에 이건 아니지 싶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8면에 자비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호 로 세 번 째 광고를 내는 김 동문은 코로나로 어려운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힘내라는 문구로 광고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보내왔다.

“의리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 당부

모교 총동문회 마지막 간사 정찬목 동문 43년5개월 교직 정년

정찬목 모교 간사가 2월 22일 모교 교장실에서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참으로 세월이 무상합니다. 교직에 몸담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3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어요”올해 2월 말일자로 모교에서 정년하는 정찬목 동문(12회)의 말에는 진한 아쉬움이 깔려있었다.

정찬목 동문은 대신초등학교와 대전동중을 나와 어려운 집안을 돕고자 모교 기계과에 입학한 정찬목 동문은 열심히 3년 간 기능부에서 실력을 연마했다.

교사로 78년 7월 연무대기계공고에 처음 부임한 정 동문은 방송통신대 경영학을 공부했고, 숭전대(현 한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85년 3월 모교로 금의환향하여 94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당시 정 동문은 총동문회와 12회 동문회의 실질적인 도우미로 활동했다. 이후 1994년 3월부터 2004년까지 대덕공고와 대전공고에서 근무했고, 2005년부터 2010년 다시 모교에서 근무한 후 2014년까지 대전산업정보학교에서 근무하고 2014년부터 모교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다. 43년 5개월의 교직 근무 중 23년을 모교에서 제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 동문은 모교 재직 중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힘써 전국 고교 중 몇 안 되는 서당을 운영했는데, 교목인 설송의 이름을 따 설송서당으로 명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간 훈장으로 예절, 다도, 동몽선습, 사자소학 등을 가르쳤다.

그 결과 예절바른 제자들을 양성하여 사건사고가 거의 없었다. 정 동문이 훈장을 맡게 된 것은 그동안 근 35년 간 동양학(기공, 작명, 풍수, 사상의학, 인산의학, 건강, 영혼, 문명사 등)을 공부한 것이 바탕이 되었다.

당시 김정식 교장이 실력을 인정하여 훈장으로 낙점한 것이다. 모교에는 한 때 교사와 행정실 직원까지 합쳐 20여 명의 동문이 근무했다. 그러나 2022년 현재는 세월이 무상한 듯 이종업 교장(14회)이 홀로 남아 모교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정찬목 동문의 모교 사랑과 동문회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기계과 선반 파트 제자들의 모임인 선우회를 비롯해 모교 기능부후원회(회장 전종현 부회장 최동준)에서는 정 동문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기능부후원회는 2월 22일 오후 5시에 모교 교장실에서 전종현 기능부후원회장과 최동준 기능부후원회부회장(선우회 회장), 하헌영 선우회 총무, 한병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전종현 기능부후원회장은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선우회에서 행운의 열쇠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은사의 앞길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했다.

전종현 기능부후원회장은 “동문으로서 모교 간사를 맡아 성심성의껏 동문행사에 최선을 다 하고, 동문 대소사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동준 기능부후원회 부회장(선우회장)은 “모교 선배이자 은사님으로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좋은 조언을 주시어 큰 힘이 되었다”고 술회했다. 정찬목 동문은 후배 제자들에게 “착한 마음씨와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동문은 또한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지간에 우애와 친구지간에 의리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찬목 동문은 모교 설송서당에서 제자들에게 사자소학과 예절 등을 가르쳤다.

정 동문이 모교 교사퇴임식에서 이종업 교장으로부터 송공패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꽃다발을 받고 동료교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 동문은 또한 동문들에게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문회 활동이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훈훈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생을 교직에서 보내고 모교에서 정년을 맞은 정찬목 동문은 앞으로 자신의 재능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모교와 동문회를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넓은 야구장에서 치고 달리면 심신이 상쾌해져요”

충남기공동문야구단 대전사회인야구 최강자로 떠올라

동문야구단이 올해 1월 서구야구협회 4부리그에서 우승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매주 주말에 연습경기와 시합을 갖고 전국정상권의 실력을 쌓아 가고 있다.

충남기공 동문야구단이 대전사회인야구 최강자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동문야구단은 2011년 설송BC로 창단된 이후 오랜 기간 대덕구야구협회에서 활동 후 중구야구협회를 거쳐 2020년 충남기공 동문야구단으로 팀명을 변경하고 서구야구협회에 안착한 순수 동문야구단으로 13회 고문부터 53회 후배까지 야구를 통해 모교홍보와 동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동문야구단은 그동안 수많은 전국대회에서 4~16강 이상의 성적을 올려 전국 공식사회인야구 3만5천여 개 팀 중 100위 안에 늘 랭크되어있는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문야구단은 2021년 대전광역시 서구야구협회 일요3부 3위를 차지한데 이어 일요4부 리그에서 우승했다.

동문야구단은 뛰어난 개인 선수들의 능력과 우수한 팀 작전 수행능력을 겸비하고 최강의 센터라인(포수 - 투수 - 유격수 - 중견수)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그 결과 리그전체 MVP 박지상(51회/투수),일요3부 타자 타점상 채문석(53회/타점 19점), 일요3부 투수 방어율상 김종인(49회/방어율 1.50), 일요4부 투수 방어율상 박지상(51회/방어율 3.59), 감독 우수감독상 김흥순(26회/18승3패) 등 우수한 성적으로 매너와 실력을 겸비하고 대전지역 사회인야구의 중흥을 이끌어 가고 있다.

동문야구단은 특히 우완사이드암 박지상 투수를 비롯해 우완정통 채문석 투수와 마무리 김종인 투수와 배터리로 김동완, 이인성, 지훈 등이 번갈아 맡고 있는데 3명 모두 강한 어깨를 갖고 있어 철벽 마운드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수 김동완, 중견수 이인성, 1루 지훈의 포메이션을 가져가면서 유격수 최성호를 포함하여 최상의 센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20대 선수들의 센터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은 50대 중 가장 빠른 김흥순 감독이다.

호타준족의 왼손으로 1루와 외야를 겸하고 있는 김흥순 감독은 젊은 후배 선수들의 멘탈과 인성을 잡아주고 경기 중에도 중요할 때 한방을 쳐주는 꼭 없어서는 안 될 감독 겸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 동문야구단은 그동안 닦아놓은 실력으로 2022년 하반기에 개최될 이마트노브랜드배 전국고교동문야구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모교의 명예를 빛낼 각오를 다지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확찐자(체중 증가)가 늘어가는 추세에서 넓은 야구장에서 치고 달리며 맘껏 운동하고 나면 심신이 상쾌해진다.

김흥순 회장은 “야구라는 운동을 통해 모교 홍보와 동문 선후배간 유대 강화에 힘쓰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아무쪼록 부상 없이 올 시즌을 보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

▲ 임원진 명단 =
고문 김학경(13회), 최영대(13회),
회장 겸 감독 김흥순(26회),
총무 이인성(51회), 최성호(51회)

▲동문야구단 가입문의 =
총무 이인성 010-2510-5718
최성호 010-7100-9970

– 신도성 편집위원 –

선수들이 이닝이 끝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로 사기를 올리고 있다.

넓은 운동장에서 경기 도중 잠시 망중한을 즐기며 야구의 묘미를 만끽하고 있다.

“모교 축구팀 2022춘계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4강 질주”

지난해 전국추계대회 준우승 이어 쾌조, “올해 기필코 우승 간다”

모교 축구팀이 깔끔하게 정비된 모교 인조잔디구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당진신풍고와의 준결승에서 전반 35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선제골을 넣었다.

모교 축구팀이 2022 춘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출전하여 4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교 축구팀은 2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경남 합천군 일원에서 48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기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펼쳐진 각 조 예선에서 2승 1무(서울동북고와 3대0승, 경기구리고에 3대1승, 현풍고와 2대2로 2승 1무)로 조 2위로 24강에 진출했다.

모교 축구팀은 24강전과 16강전, 8강전에서 승리하고 준결승에 진출하여 당진 신평고와 격돌했다. 모교팀은 전반에 페널티킥으로1:0으로 리드하다가 후반전에 3골을 잃어 아쉽게 역전패했다. 이로써 모교팀은 지난해 2021 추계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준우승을 거둔데 이어 올 춘계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여 올해 우승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전 경기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오세종 감독은 “비시즌 동안 열심히 훈련했고, 새로운 지도자와 선수들이 잘 융화되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연습해온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선수들과 부상 없이 올해 열심히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영식 모교 축구부장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모교 동문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빡빡한 일정의 선수들이 편하게 경기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조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종현 모교기능부후원회장(총동문회 고문)은 모교 후배 축구팀이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일봉을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정흥교 교감 용전중 영전, 강석종 교감 부임

모교 3월 정기 교원인사 전입 23명 전출 17명

대전시교육청의 2022년도 3월 정기 교원인사에서 모교에 23명이 부임하고 17명이 전출됐다. 모교 정흥교 교감은 용전중 교장으로 승진했고, 임재범 교감은 하기중으로 전보됐다. 모교에는 대전산업정보고 강석종 교감이 승진 부임했다.

전입 교사들은 2월 26일 업무분장 및 담임교사 발표로 새 학기 펜더믹 속에 3월 2일 개학으로 등교하여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며 명문 충남기계공고에서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 전입(전공)

▲대전산업정보고 강석종(교감) ▲대전공고 서인수(건설) ▲유성고 김경난(국어) ▲대전고 박충배(국어) ▲대전전자디자인고 조은혜(국어) ▲대전공고 이전희(기계) ▲대전공고 유병욱(기계・금속) ▲유성생명과학고 정일구(기계・금속) ▲대전반석고 황태훈(물리) ▲대전국제통상고 류연주(수학) ▲대전공고 이정화(영어) ▲대전전자디자인고 이은순(일반사회) ▲대전공고 안은숙(일본어) ▲대전산업정보고 나경선(전기・전자・통신) ▲대전산업정보고 오일연(전자) ▲대전괴정고 양기미(진로진학상담) ▲한밭고 박형근(체육) ▲대전구봉고 이창수(체육) ▲대전맹학교 문금희(특수) ▲중리중 김도관(한문) ▲신규 정성훈(기계) ▲신규 김주현(기계) ▲신규 홍주영(영양)

*전출(전공)

▲용전중학교 정흥교(교장) ▲하기중학교 임재범(교감) ▲대전전자디자인고 김향순(국어) ▲한밭고 양현애(국어) ▲대전용산고 주재희(국어) ▲대전산업정보고 김정연(기계・금속) ▲대전전자디자인고 임창욱(기계・금속) ▲대전반석고 황연호(물리) ▲대전국제통상고 박명화(수학) ▲대전지족고 김기연(영어) ▲대전전자디자인고 강한아(전기・전자・통신) ▲대전전자디자인고 권현진(전기・전자・통신) ▲대전산업정보고 박광현(전기・전자・통신) ▲대전체육고 최연식(체육) ▲서부교육지원청 박노윤(영양) ▲경기도교육청 이미연(일본어) ▲경기도교육청 김가윤(특수)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부탁해요 ”

모교 근무 5명 선생님들 퇴임식

모교에서 열정적으로 교육에 헌신하신 5명의 선생님이 2월 15일 모교 대회의실에서 이종업 교장과 동료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는 정년퇴직 2명(정찬목, 이후영), 명예퇴직 3명(이택우, 박종열, 송대영) 등 모두 5명으로 정찬목(모교 12회), 송대영(모교 22회)교사는 모교에서 퇴임하는 영예로 아름다운 모교 사랑을 가슴속에 담았다.

이날 행사는 전 직원이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며 진행하였고 전 직원을 대표하여 이종업 교장으로부터 송공패, 꽃다발, 전별금을 전달 받았다.

퇴임 교사들은 퇴임사에서 평생 교사로서의 회환과 후배 교사 들에게 올바른 제자 교육을 부탁하며 선생님들의 건강함을 기원하였고, 기념사진을 찍고 퇴임식을 마쳤다.

수입 현황

기간 : 2022년 1월 19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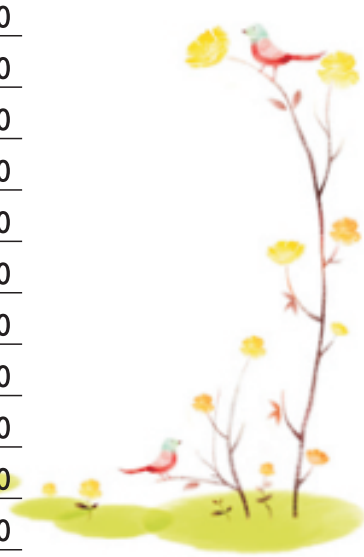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방	1	강필규	20,000	자	4	황완수	20,000	자	11	강재구	20,000	배관	16	고창복	20,000	기	24	박종호	50,000
자	1	류 선	20,000	전	5	오완세	20,000	전	11	김용진	100,000	기	16	송상호	20,000	전	24	소연섭	20,000
방	1	문상복	20,000	전	5	이인성	20,000	화	11	박대범	20,000	기	16	양재운	100,000	기	24	손연화	20,000
방	1	박성재	20,000	방	6	김대련	20,000	자	11	양준전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26	권경중	50,000
방	1	백운길	100,000	자	6	김태관	20,000	전	11	오덕환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26	류한의	20,000
상	1	오응수	100,000	전	6	유동환	100,000	기	12	강영수	20,000	기	16	이재근	20,000	기	26	박경신	20,000
자	1	윤영호	20,000	자	6	한재헌	20,000	기	12	강희창	100,000	기	16	이재선	20,000	배관	27	김도진	20,000
자	1	이창우	20,000	전	6	황재현	20,000	기	12	남상구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금	27	김장환	20,000
자	1	이형모	20,000	방	7	김민주(김이중)	50,000	전	12	박귀만	20,000	기	16	임상빈	50,000	기	28	윤수원	20,000
광	1	정종훈	20,000	전	7	김상구	20,000	화	12	박기영	10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29	김용만	20,000
자	1	조관현	50,000	전	7	서권한	20,000	전	12	박찬웅	20,000	전	16	한흥교	70,000	기	30	이정근	100,000
자	2	임평근	50,000	광	7	윤제복	20,000	기	12	서영환	100,000	기	17	강대기	20,000	기	30	이진혁	50,000
광	2	진일두	20,000	광	7	이동승	30,000	방	12	오세구	100,000	기	17	류승정	100,000	기	31	권오진	100,000
광	2	최인성	20,000	전	7	이은상	20,000	기	12	이종화	20,000	전	17	서용덕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상	2	한종희	20,000	전	7	전관수	20,000	기	12	전종현	200,000	기	17	송진재	50,000	기	39	박종규	20,000
상	2	황태규	20,000	전	8	고영철	20,000	기	12	차정회	20,000	기	17	임계순	20,000	기		이성준	20,000
광	3	김영복	20,000	전	8	김용범	50,000	전	12	한영식	100,000	전	18	마수용	50,000			무기명	20,000
자	3	민석식	120,000	자	8	복영규	20,000	기	13	김태근	20,000	기	18	박상년	50,000	단체	26회	동문회	100,000
전	3	민철기	20,000	전	8	손영남	20,000	기	13	오광진	100,000	기	18	신기현	20,000				
전	3	박광수	20,000	화	8	송필현	20,000	전	13	이일섭	20,000	기	18	이은성	20,000				
광	3	박상철	20,000	기	8	신도성	50,000	기	13	한갑우	20,000	기	19	김희섭	20,000				
방	3	박성하	20,000	방	8	이태용	20,000	기	13	홍구표	20,000	기	19	무기명	20,000				
광	3	서한수	70,000	전	8	임광혁	20,000	기	14	강신열	200,000	기	19	배영환	20,000				
전	3	송의석	20,000	전	8	임헌표	50,000	기	14	김교신	100,000	기	19	송전의	50,000				
자	3	윤성도	20,000	자	8	정기원	20,000	기	14	김기영	500,000	기	19	임운택	100,000				
전	3	이용주	20,000	기	8	최용신	20,000	기	14	남상복	50,000	기	20	김동로	50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9	김범우	20,000	기	14	백채준	50,000	기	20	김재목	20,000				
전	4	권수복	20,000	자	9	김시절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20	허기무	20,000				
자	4	김성식	20,000	전	9	김정구	20,000	기	14	양승권	100,000	기	20	황윤철	20,000				
자	4	나채규	20,000	광	9	신승수	100,000	기	14	오승준	50,000	전	21	남궁만	20,000				
전	4	라상원	20,000	전	9	윤영선	20,000	기	14	이상호	20,000	기	21	신찬수	100,000				
자	4	민용기	20,000	전	9	이도한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21	이상구	20,000				
전	4	박주국	20,000	전	10	곽용섭	20,000	기	14	임헌장	20,000	기	21	조정관	20,000				
방	4	송석범	100,000	전	10	김병락	20,000	기	14	주명진	20,000	기	21	진춘식	100,000				
전	4	송중섭	20,000	전	10	김생환	200,000	기	14	최영민	20,000	기	22	이희국	50,000				
전	4	오희관	20,000	기	10	오병주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2	정연근	20,000				
전	4	이승원	20,000	전	10	오창균	20,000	기	15	김진옥	20,000	기	23	도병희	20,000				
광	4	이장래	20,000	광	10	윤여갑	20,000	기	15	노영재	20,000	기	23	박광수	20,000				
광	4	이재두	20,000	광	10	이기성	20,000	전	15	박완수	20,000	기	23	박봉구	100,000				
방	4	이호영	20,000	전	10	이성우	20,000	기	15	서경원	100,000	기	23	홍열표	20,000				
광	4	장희석	20,000	자	10	홍성주	50,000	화	15	이석신	20,000	기	24	박경서	50,000				

회보광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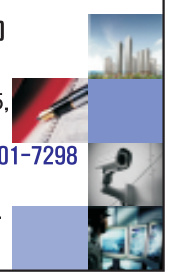
기	15	서경원	50,000
기	18	박종용	10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20	김동로	50,000



KIA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GSA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사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 영 옥 (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사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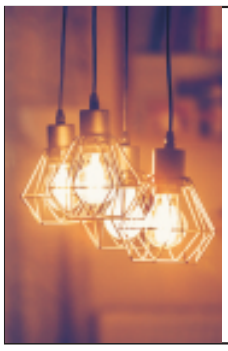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사회적협동조합 돌다리청림가 doldariro.com
돌청장애인보호작업장
기계과(15회) 서 경 원

생산(판매)품 카페운영, 빵, 우유 등 음료
직업재활훈련 제빵, 바리스타 등
전화번호 (주문) Tel 042)272-1006 Hp 010-5455-7531
E-mail gwseo590401@hanmail.net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돌다리로36(석교동)
후원계좌 하나은행/627-910017-54005 돌다리청림가 사회적협동조합(공익법인)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Asung (주)아성전기조명상사
대 표 표 광 열 (11회)
010-9252-1685
◈LED조명기구, 전선류
◈나노 배선기구
◈위너스 배선기구
◈번개표 조명
◈각종 전기용품도소매 총판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 4(대흥동)
TEL : (042) 253-1625 / 226-1625
FAX : (042) 222-1625
E-mail : asung430@naver.com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경비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덕분에 고맙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大 충남기계공고 졸업생입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20회 정밀기계과 김동로 010-2526-8033

NH NongHyup 농협 홍삼
차장 김 병 설 (전. 29회)
010-5456-3966
면역력 향상으로 건강 증진!
한삼인 농협홍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TEL : 043-835-8585
FAX : 043-835-8536
E-mail : kbs-75@hanmail.net